지원동기

문화예술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콘텐츠 창작자가 되려고 관련학과에 진학했고 공부를 하던 중 콘텐츠에는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사의 원형인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문학을 복수로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콘텐츠 기획 관련 수업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도 아래 기획을 해보는 영화 홍보사 워크샵에도 참여하며 현장 감각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때 많은 일들이 참 이상하지만 당연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유망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외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많은 과업이 주어집니다. 초과 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열정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개봉 일정이 다가오면 잦은 야근을 필수로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촬영감독은 14년간 야근을 딱 5일만 했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아도 계획 단계부터 마감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일하면 일정상 충분히 가능하며, 야근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에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야근을 오히려 지양하는 풍조가 지배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콘텐츠 산업상 가장 귀하게 대접 받는 스타 배우들조차 밤샘촬영과 쪽대본을 소화해내는 실태를 겪으면서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고통 받는데, 그들 이외의 현업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또한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라는 말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었지만 정작 원형이 되는 원 소스에 대한 저작권이 분명히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창작기업의 창작물은 상위의 창작자 혹은 제작사 자체의 저작권으로 귀속 되거나, 작은 기업의 콘텐츠가 더 큰 기업에 포식되는 다층적인 부당구조가 만연합니다. 일례로 백희나 작가의 동화 ‘구름빵’은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제작과 더불어 활발히 수출되어 4400억원 상당의 놀라운 수익을 거두었으나 작가가 받은 저작권료는 1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업계의 오랜 관행인 매절계약, 즉 저작물 이용 장래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형태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지만, 아직도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신진 창작자들이 부당한 계약을 하고서라도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려 하는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콘텐츠 창작을 위해 문학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작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할 기회와는 다소 멀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한 삶을 다루는 문학을 탐구하면서 어떤 가치가 더 타당한 것인지, 정의가 아닌 것이 어떻게 부당한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했고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는 못 했지만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뉴스에서는 드라마 스태프가 과로로 인해 사망한 소식이 들려오고 문화계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한 사례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으며, 영화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꿈을 접고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부당한 일들에 점차 답답해졌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대학원 공부가 끝나면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다른 방식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화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산업은 개인이라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 노력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제 그 개인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노동과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법 공부를 통해 확실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창작자의 꿈을 지켜주는 문화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Comment – 사례 부분이 긴 것 같습니다. 예시를 넣고 싶어 넣었습니다.

장단점과 가치관

가치관? – 어떤 것을 써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하고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쓸지?

사례 1.

저는 주어진 본분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습관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학 특성상 학과 커리큘럼이 실습분야와 학문분야가 융합되어 있었는데, 입학 이후 많은 학생들이 실습분야가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그 분야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 작용할 때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늘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성격상의 습관으로 매사에 노력하여 첫 학기 과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문학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뒤늦게 영문학을 복수전공하게 되었는데 처음 접하는 학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알 때까지 책을 붙들었고 끝내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첫 학기 수업의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수업이 초학자에게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수업을 권하셨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듣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저에게 영어 논문을 주시고는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다룰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해보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가며 공부하고 스피치 연습을 하며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발표로 인해 칭찬을 받으며 교수님께서 복수전공생에게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첫 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늘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는 성격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뒤늦게 영문학을 복수전공 하면서도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 여러 외부적 사정상 늘 기탄 없이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항상 주어진 본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사에 끈기 있게 열심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스스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지향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향으로 인해 원래 갈 수 있었던 지점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업계획

학기별로 써야 할 것 같은데, 학교 홈페이지의 커리큘럼도 비슷해 보여서 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어떻게 연관해서 쓸 지 고민됩니다.

이 학기에는 뭘 듣고 이런식으로 써야 할까요?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싶다. 지재권. 저작권.

수학능력부분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진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서사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현업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세부전공 수업들을 접할 수 있고, 장서가 가장 많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가야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학교 선택 이후 알게 된 입시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읽어야 할 책 목록이 어마어마했고 이를 바탕으로 치르는 전공시험도 문학 작품 수록 내용 중 한 단락을 제시하면 제목과 저자를 맞혀야 하는 난감한 문제들과 주제별로 에세이를 써야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매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도 높은 점수의 공인영어성적 제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2외국어 독해시험 통과, 면접의 관문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작품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소설의 상황과 문맥, 큰 주제, 인물들의 특성, 시의 내용상 흐름 등 종합적으로 작품을 파악하려고 분투했습니다. 물론 저자와 작품명은 순수 암기의 영역이므로 철자 하나, 관사 하나도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틈틈이 독일어 독해를 공부하고 공인영어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모든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대학원에서의 공부는 내용적 측면에서 법학 공부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세세하게 풀어내어 인간과 삶에 대해 고찰하게 만드는 것이 문학이라면 세상을 객관화하여 압축해둔 형태가 법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문 하나하나에는 많은 삶들이 축약되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공부하면서 작품에서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해야 했고 페이퍼에 한 줄의 주장을 할 때에도 작품과 비평에서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공부는 인물들을 깊게 들여다보며 정의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인간상을 해석하려 노력합니다. 작품 속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바뀌고 연구자의 재조명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거시적 맥락이 법학 공부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는 일상의 사건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법적 근거에 포섭하여 객관화하며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 또한 공부 방법적 측면에서 문학과 유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 법학 공부라고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 민법총칙, 채권총칙 두 과목을 이수한 것이 전부이지만 부단한 노력과 흐름의 이해를 통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취, 위기극복 및 자기개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지역 전문대(Community College)에서 영화 현장 경험을 위해 단편영화 제작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전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교의 단편 제작 수업에서는 또래의 대학생들과 협업했는데 그때와는 달리 두 번째 학교에서는 뒤늦게 꿈을 이루고자 학교를 다시 찾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생업과 병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열정도 크다 보니 자기 주장이 다들 강했습니다. 저는 팀에서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출연 배우들을 섭외하고 촬영 장소를 정하고 스케줄을 조율하는 등의 관리 및 조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팀에 유난히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양보를 하려 들지 않았고, 감독과 작가는 다툼이 커져 결국 깊은 감정의 골을 내비쳤으며 배우 역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울릴 때에는 모두 저에게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작품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진해서 제가 더 일하려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말을 들어주고 성과를 칭찬해주며 촬영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현실적 여건상 기한 내에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팀의 팀원들에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촬영장에 가서도 일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아 현장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어학연수의 형태로 간 학교였기에 본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그 지역에서는 6개월 정도만 머무를 예정이라 구직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들 손 놓고 있는 때에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책망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저는 관리자의 업무를 맡았기에 제가 더 노력하고 잠잘 시간을 줄여서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작품을 꼭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결국 여러 조율이 잘 통하여 스케줄 내에 작품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수업 시작 때에는 저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 주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꼽아줄 때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계획

부산대 (고민됨. 어떻게 하면 낮잡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게 쓸지.)

처음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진학 할 때에는 문화계에서 일하려면 문화의 첨단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한 후 문화계의 권리 변화의 바람도 서울이 먼저일 것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후발주자가 아직 겪고 있을지도 모를 권리문제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권리나 지적 재산권을 공부하고 타인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산의 문화계에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필두로 영화의 전당을 비롯하여 벡스코(BEXCO) 컨벤션 센터, 옛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F1963,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사례가 아니어도 고등학교 때 막 생기기 시작한 아트마켓은 이제 부산 곳곳에서 다수 개최되어 신진 창작자들과 문화예술 향유자들간의 소통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계 종사자와 창작자들의 현장, 즉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그들이 본업 이외의 문제로 고통 받으면서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화된 분야에서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통해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송무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는 다변화하는 콘텐츠에 맞춤 맞게 세분화된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기여 하고 싶습니다.

충북대

소규모 창작자들도 마음 놓고 몰두할 수 있는 환경에 일조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저 방송사의 경우 저작권 문제, 부당 노동 문제, 성희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의 길이 요원하다 합니다. 기업과 계약하는 개인 창작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다원화된 콘텐츠 별로 세분화된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송무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는 다변화하는 콘텐츠에 맞는 입법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